LUXURY

눈에 보이는 호사나 물질적인 사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질을 앞서는 정신의 풍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The word LUXURY is, really, associated with the effort to make life more meaningful by those trying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ichness of spirt above that of materials, not a word merely referring to visible extravagance or materialistic richness.

<락셔리>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에서 최고급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다룸으로써 명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이 주는 감동을 전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We at LUXURY aim to make it a premium lifestyle magazine by dealing with premium brands and lifestyles from an artistic and cultural perspective and striving to deliver the true meaning of premium goods and deep feelings provided by art to readers.

AUDIENCE PROFILE

수준 높은 안목과 취향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경험과 스타일을 자유롭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30~40대 스마트 & 리치

Our major readers are smart and high-ended people in their 30s and 40s acting as free and wise consumers and pursuing their own unique experiences and styles with discerning eyes and tastes.

AD INTEREST

광고 관심도

<럭셔리>의 기사뿐 아니라 광고도 관심 갖고 본다

PURCHASE EXPERIANCE THROUGH AD

8% %

광고 통한 구매 경험

<럭셔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SHOPPING APPLICATION

70 10/

쇼핑 활용성

쇼핑 시 <럭셔리>의 제품 정보를 활용한다

PRODUCT INFORMATION COMPETITIVENESS

72 5% 🛽



제품 정보 경쟁력

제품 정보 면에서 다른 잡지에 비해 <럭셔리>를 더 선호한다

< 국석리>는 우리나라 최고급 취향의 소비자들을 만나려는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잡지입니다. 패션과 뷰티, 고급 주택과 가구, 자동차와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외 최고 명품의 광고가 실리고, 그 효과가 구매력 높은 <럭셔리> 독자들의 확실한 피드백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럭셔리>만의 전략적 배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독자와 소통하고 광고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LUXURY is a magazine the most savored by sponsors trying to meet the country's consumers having got class. The magazine carries ads about top-of-the-line goods related to fashion, beauty, and leisure as well as premium houses, furniture, cars, etc. The effect is felt clearly by the feedback of readers with sheer purchasing power. Businesses can expect to communicate with more readers and enhance the effect of their ads through the strategic distribution system that only LUXURY has.

대한민국 최고급 소비자, 독자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만날 수 있는 잡지가 바로 <럭셔리>입니다. <럭셔리>는 엄격하게 선정한 배본처를 통해 최상의 광고 피드백을 보장합니다.

You cannot miss LUXURY in a place where there are consumers/readers with a high-end taste. We at LUXURY guarantee the best advertisement feedback through handpicked destinations of distribution.

HIGH-CLASS RESIDENCE

22,000 1

청담동, 압구정동, 양재동, 성북동, 평창동 등 주요 지역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 저택 약 2만 2000 가구

DEPARTMENT STORE



전국 17개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VIP 명품 구매 고객

HOTEL & FITNESS



80여 곳의 특급 호텔과 고급 피트니스클럽 VIP회원

LOCAL HUB

지방주요도시거점약1000여곳에 비치

VIP LOU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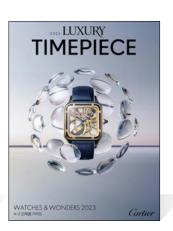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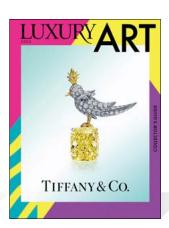
2001년 창간 이래, <럭셔리>는 누구나 꿈꾸는 최상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교한 기획을 통해 고급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ince its publication of the first issue in 2001, LUXURY has secured its position as the most reliable media by top-notch consumers through exquisite planning on high-end lifestyle that everyone dreams of.









FASHION

하이엔드 패션 업계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생생하고 깊이 있는 기사로 전달합니다. 예술과 접목한 다채로운 패션 화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링 화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아이템 화보는 <럭셔리>의 강점입니다.

BEAUTY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트렌드, 신제품 소식 등을 매력적인 화보와 기사로 소개합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피트니스와 웰빙 제안은 물론 국내외 최고의 전문 클리닉과 의료 정보도 제공합니다.

FEATURE

글로벌 기업의 리더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예술계 거장, 디자이너, 셀러브러티, 촉망받는 신예 아티스트까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럭셔리>만의 밀도 있는 인터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지 못지않은 아트 & 건축 분야의 수준 높은 기사를 통해 많은 독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LIVING

풍요롭고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리빙과 인테리어, 미식, 가젯, 자동차, 여행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깊이 있는 취향을 만족시키며, 안목과 감각을 높여줄, 다채로운 기사들로 채웠습니다. 본지 기사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NS의 경우, 가장 사용자가 많은 3개의 전략 채널에 집중하고

각 채널에 적합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제작 및 확산시켜 다양한 독자를 유입합니다.

전략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합니다.

LUXURY is also available online.

We focus on the three strategic channels having the most users.

We strive to produce good-quality content suited to the characters of each channel.

We aim to attract a variety of readers by producing and spreading new content continuously.

We will secure a solid group of readers through strategic and professional marketing and promotion.





• luxury.designhouse.co.kr

<럭셔리>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 luxuryeditors

<럭셔리> 에디터가 직접 올리는 최신 뉴스와 소식

luxuryeditors

<럭셔리> 에디터가 전하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사진 뉴스'

luxuryeditors

<럭셔리> 에디터들의 생생한 영상과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



1976년 월간 <디자인> 창간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디자인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온 디자인하우스는 프리미엄 멤버십 잡지 <럭셔리>를 비롯해 월간지와 전문 단행본, 다양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는 리빙디자인페어와 겨울에 열리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 리빙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미디어와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가장 앞선 행보를 선보이며 국내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Design House Inc. launched <Design> in 1976 and have strived to make design a part of people's daily lives. We now publish monthly magazines including <LUXURY>, a premium membership magazine, professional books, and a variety of PR magazines. Design House also hold large-sized design & living events such as Living Design Fair held in spring and Seoul Design Festival held in winter. We make a point of leading others in sectors like digital media and new media and aim to be recognized as the country's No.1 business specializing in life style media content.

design house

MAGAZINES DESIGN / 행복이가득한집 / LUXURY / LUXURY M

STYLE H

FAIRS & EVENTS SEOUL LIVING DESIGN FAIR

SEOUL DESIGN FESTIVAL

BUSAN DESIGN WEEK / CREATORS' GROUND

CONTENT MEDIA 1집 / DH BOOKS / DH SPACE

DESIGNPRESS HEYPOP / FIND

www.desighouse.co.kr

럭셔리

	POSITION	RATE
표지광고 + 6페이지 화보 패키지	Front Cover	80,000,000
표지 변형	Gate Fold	40,000,000
표2 표2 대면	1st DPS Inside Front Cover DPS (IFC)	28,000,000
2번째 양면 페이지	2nd DPS	27,000,000
3번째 양면 페이지	3rd DPS	26,000,000
4번째 양면 페이지	4th DPS	25,000,000
5번째 양면 페이지	5th DPS	24,000,000
6번째 양면 페이지	6th DPS	23,000,000
DPS와 목차사이	DPS Between Contents	18,000,000
목차전 대면	Edito / L List	10,000,000
목차대면	Contents	9,000,000
판권대면	Masterhead	9,000,000
판권 이후 1st ~ 4th 대면	After Masterhead 1st ~ 4th SP	8,000,000
판권 이후 5th ~ 10th 대면	After Masterhead 5th ~ 10th SP	7,500,000
일반 기사 대면	Single page facing articles	6,000,000
삽지 광고	Insertion advertisement 1pages	8,000,000
	Insertion advertisement 2pages	15,000,000
	Insertion advertisement 4pages	28,000,000
표3	Inside Back Cover single page	10,000,000
표3 표3 대면	Inside Back Cover DPS	18,000,000
표4	Outside Back Cover	36,000,000

창간일 2001. 2. 25발행일 매월 24일지면 마감 매월 13일광고 마감 매월 16일판형 228×297mm인쇄 옵셋재단 사이즈 가로·세로 각 3mm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인쇄소 M-print(031-8071-0960)

매체명 월간 <럭셔리>

별 책

	RATE	
표지광고	Front Cover	60,000,000
표2 표2 대면	1st DPS Inside Front Cover DPS (IFC)	25,000,000
2번째 양면 페이지	2nd DPS	30,000,000
3~5번째 양면 페이지	3rd ~ 5th DPS	20,000,000
일반 기사 대면	Single page facing articles	6,000,000
표3	Inside Back Cover single page	12,000,000
丑4	Outside Back Cover	40,000,000

6월호 <럭셔리 타임피스> | 9월호 <럭셔리 아트> | 10월호 <럭셔리 주얼리 & 워치> | 11월호 <럭셔리 모터스>

디지털

	CHANNEL		TIME	RATE
소셜미디어	INSTAGRAM + FACEBOOK(미러링) 결합 상품	게시물	지속	5,000,000
		스토리	24시간	1,000,000
	영상제작(IGTV게재, FB)		지속	15,000,000~

EDITORIAL

EDITOR IN CHIEF

윤정은 편집장 JUNGEUN YOON yoon29@design.co.kr 010-3356-3657

FASHION EDITOR

010-7548-9979

이민정 기자 MINJUNG LEE mjlee@design.co.kr 010-4547-1245 김송아 기자 SONGAH KIM songahkim@design.co.kr 010-3224-9630 차세연 기자 SONGAH KIM seyouncha@design.co.kr

BEAUTY EDITOR

정두민 기자 DOOMIN JEONG dmj@design.co.kr 010-3127-7076 이영진 기자 YOUNGJIN LEE lee.youngjin@design.co.kr 010-5737-0833

LIVING & FEATURES EDITOR

정송기자 SONG JEONG song@design.co.kr 010-3237-9722 이호준기자 HOJUN LEE hojun@design.co.kr 010-3729-6139

AD & MARKETING

DIRECTOR

김수진 부장 SOOJIN KIM kimsoojin@design.co.kr 010-8825-5024

SENIOR MANAGER

정혜림 차장 HYERIM JEONG hr.jeong@design.co.kr 010-2087-0576

ASSISTANT MANAGER

도현준 대리 HYUNJOON DO gihun0604@design.co.kr 010-2278-9959

<락셔리> 편집 2262-7437 광고 2262-7401 유통관리 2262-7407 정기구독 080-007-1200